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 교수 도현심*

석사 김선미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oh, Hyun-Sim

Master : Kim, Sun-Mi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to peer victimization as well as the gender differences in peer victimization. A sample of 494 5th- and 6th-grade children in Pusan answered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regarding maternal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Peer victimization consisted of two constructs, bullying and victimization by peers.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correlations. Boys showed more overt bullying and victimization by peers than girls, but relational peer victimization didn't vary as a function of the gender. Overall, the more boys and girls perceived their mothers as rejective/restricted, protective, and physically abusive, the more they were bullied and victimized. Both boys and girls were bullied and victimized by their peers when they showed lower self-esteem. Especially self-esteem wa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victimization by peers than bullying.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또래괴롭힘 가해행동(bullying), 또래괴롭힘 피해행동(victimization by peers)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따돌림, 놀림, 학교폭력, 왕따 등의 또래괴롭힘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3)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언어폭력이나 협

박에 의한 피해율은 초등학생이 14.8%, 중학생이 12.3%, 고등학생이 4.9%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에 의한 피해율도 초등학생이 17.4%, 중학생 9.0% 고등학생이 4.4%로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지상을 통해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관련 보도에서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그 주요 원인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정도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또래괴롭힘은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자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

* 교신저자 : 도현심(E-mail : simdoh@ewha.ac.kr)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해아와 피해아 중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양쪽 모두를 포함하여 수행된 경우는 드문 편이다. 가해아의 측면인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이하, 가해 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어온 반면, 피해아의 측면인 또래괴롭힘 피해 행동(이하, 피해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남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남아들 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overt) 유형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여아에게서 보다 빈번히 발견되는 관계적(relational) 유형을 포함하여 또래괴롭힘을 직접적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2001; 박보경, 2002; Crick & Bigbee, 1998;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Werner, 1998). 예를 들어, 직접적 가해 행동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이고, 관계적 가해 행동은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것 또는 또래에게 보복하는 것과 같이 또래관계나 우정에 해로운 조작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직접적 피해 행동과 관계적 피해 행동은 이를 피해아의 입장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의 개념으로 가해아 측면인 가해 행동(bullying)과, 피해아 측면인 피해 행동(victimization by peers)을 모두 포함함과 동시에,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모두를 각각 직접적 유형과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에 그치거나 연구대상이 중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또래괴롭힘과 이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밝힘으로써 사후적 개입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정원, 2000; 최보가·임지영, 1999). 반면, 그 예방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나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통해 또래괴롭힘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시도한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민유리, 1999; 박보경, 2002).

또래괴롭힘을 초래하는 변인 중 하나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들 수 있다. 가해 행동은 일종의 공격성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 행동으로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보다 더 공격적이었다(김민정, 2001; Perry, Kusel & Perry 1988). 아동의 공격성은 특히 가정에서 받

는 처벌의 정도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어, 어머니가 처벌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아동은 학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김효정, 1991; 노치영, 1998; Sears et al., 1957). 부모가 처벌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을 할 경우, 아동은 보다 더 거칠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게 된다(Patterson, 1982). 남아의 경우에는 동성인 아버지를 모델링함으로써 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노치영, 1998).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또한 일반 아동들에 비해 부모가 거부적 태도로 양육하거나 엄격하고 비밀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였다(이양순, 1988). 즉, 부모가 거부적이고 제한적이며, 비온정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할 때 아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다(Carson & Parke, 1996; Eron, 1982; Hart et al.,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피해 행동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아동을 과보호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또한 그렇게 지각할 때, 아동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당하였다(도현심·최미경, 1998; Bowers et al., 1994). 부모가 지나치게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수동적 행동특성을 보이고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Olweus, 199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외에 거부적 양육행동 역시 피해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적대감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nnegan, 1995; Rigby, 1997). 남아의 피해 행동 역시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관련되었다(Olweus, 1993). 또한 최근에는 어머니가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이 또래로부터 보다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연구결과(이경남, 2001)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밝혀진 또래괴롭힘 관련 양육행동 요인들, 즉 거부/제재, 과보호, 학대 및 방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아동행동 특성으로는 앞서 언급한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꼽을 수 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를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가해 행동 사이에는 평균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Olweus, 1978),

실제로 또래를 괴롭히는 아동이 또래를 괴롭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Rigby & Slee, 199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가치감을 가진 아동들이 높은 가해 행동을 보였다(Austin & Joseph, 1996). 즉, 또래를 괴롭히는 아동은 교사 및 학교와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또래를 더욱 공격하는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또래를 보다 더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심희옥, 2002). 마찬가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피해 행동으로 인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기주장성과 자기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Olewus, 1993). 낮은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취약점을 드러내게 하여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Egan & Perry, 1998; Olweus, 1993; Perry et al., 1988).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피해 행동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igby, 1997).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은 공격적인 아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면화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 국내 연구에서도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2년 전에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심희옥, 200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국내의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민정, 2001; 심희옥, 2002; 이숙·이춘아, 1998; Egan & Perry, 1998; Olweus, 1993; Perry et al., 1988; Rigby & Slee, 1993).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어,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모두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남아는 직접적 가해 행동과 직접적 피해 행동을, 여아는 관계적 피해 행동과 관계적 피해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Crick, Casas & Ku, 1999). 이와 달리 국내 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접적 또래괴롭힘에서는 성차가 보고되는 반면 관계적 또래괴롭힘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경남, 2001; 이은주, 2003; 정은희·이미숙, 2004). 이러한 결과는 가해 행동(혹은 공격성)만을 주제로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김민정·도현심, 2001; 박성연·강지훈, 2005). 피해 행동에 초점을 두어 그 하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에서도 남아는 여아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숙·이춘아, 1998; Perry, Williard & Perry, 1990).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과 그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가 피해 행동과 관련되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가 피해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Finnegan, 1995; Finnegan, Hodges & Perry, 1998). 또한 피해 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보다 더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양원경·도현심, 1999). 이처럼 또래괴롭힘 하위 요인에서의 성차를 비롯한 관련변인들간 관계에서의 성차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또래괴롭힘과 관계적 또래괴롭힘 각각에서의 성차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남녀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비해 또래관계가 상대적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이자 또래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 중기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관련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 측면인 가해 행동과 피해자 측면인 피해 행동의 각 하위 유형에서의 성차를 확인해 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은 각각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즉, 어머니의 거부/제재, 과보호, 학대, 방임 등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Y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94명(남아 263명, 여아 231명)이다. 연구대상의 연령층은 아동 중기 말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점(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3)에 근거하여 선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45.8%(223명), 대학교 졸업이 31.8%(155명), 대학원 이상 3.3%(16명),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0.1%(192명),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28.8%(138명), 대학원 이상 11.3%(54명)으로, 과반수의 부모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또래괴롭힘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되며, 아동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래괴롭힘 척도는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척도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거부/제재, 과보호, 학대, 방임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되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1)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 척도는 Crick과 Werner(1998)의 척도를 박보경(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5문항씩을 포함하는 직접적 가해 행동 요인과 관계적 가해 행동 요인으로 구성된다. 직접적 가해 행동 요인에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주먹질 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 등이, 관계적 가해 행동 요인에는 '나는 어떤 아이한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 아이와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집단 활동이나 놀이시간에 어떤 아이들이 우리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이 포함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직접적 가해 행동이 .70, 관계적 가해 행동이 .72이었다.

또래괴롭힘 피해 행동 척도는 Crick과 Bigbee(1998)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를 박보경(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직접적 피해 행동 요인과 관계적 피해 행동 요인으로 구성된다. 직접적 피해 행동 요인은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는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며, 관계적 피해 행동 요인은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한테 화가 났거나 보복하고 싶어 해서 어떤 일에서 나를 따돌린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직접적 피해 행동이 .79, 관계적 피해 행동이 .90이었다.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척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홍성훈(2002)의 척도 중에서 거부/제재 요인과 Doh와 Falbo(1999)의 6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과보호 요인, 허묘연(2000)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 학대 요인과 방임 요인 등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으며(요인 I: 거부/제재, 요인 II: 학대, 요인 III: 과보호, 요인 IV: 방임), 전체 문항들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1개의 문항만이 제외되어, 본 분석에는 총 38문항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래의 척도에서는 거부/제재에 포함되었던 문항과 방임에 포함되었던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학대 요인에 포함되었고, 본래의 척도에서 학대에 포함되었던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거부/제재 요인에 포함되었다. 거부/제재 요인은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실 때가 많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두고두고 몇 번씩 말씀하실 때가 많다' 등의 13문항으로, 과보호 요인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시는 편이다', '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하지 못하신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 요인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신다',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다' 등의 6문항으로, 방임 요인은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거부/제재가 .88, 과보호가 .83, 학대가 .88, 방임이 .72이었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선영과 도현심(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역코드)'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낮추는 두 개 문항을 제외하고, 본 분석에 사용된 8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74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부산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17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질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들에게 직접 배부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532부의 질문지 가운데 494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3%).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각각에서의 성차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에서의 성차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직접적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가해 행동($t=4.09, p<.001$)과 피해 행동($t=2.11, p<.05$) 모두 직접적 유형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적 유형에서는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직접적 가해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학대, 방임적 양육행동과 직접적 가해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r=.14$ 와 $.16, p<.05$, 여: $r=.14$ 와 $.15, p<.05$), 연구대상 아동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 방임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직접적 가해 행동을 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제재($r=.26, p<.001$), 과보호적 양육행동($r=.16, p<.05$)과 직접적 가해 행동간에는 남아에게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거부/제재, 과보호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 경우, 남아의 직접적 가해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적 가해 행동간의 관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 학대, 방임적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관계적 가해 행동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표 1>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에서의 성차

	남아(N=263)		여아(N=231)		t
	M	SD	M	SD	
직접적 가해 행동	1.84	.51	1.67	.46	4.09***
관계적 가해 행동	1.47	.46	1.47	.41	n.s
직접적 피해 행동	1.61	.65	1.49	.53	2.11*
관계적 피해 행동	1.39	.56	1.37	.55	n.s

* $p<.05$, *** $p<.001$.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가해 행동간의 상관관계(남/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직접적 가해 행동	관계적 가해 행동
거부/제재	.26***/.00	.26***/.04
과보호	.16*/.01	.38***/.24***
학대	.16*/.15*	.34***/.42***
방임	.14*/.14*	.38***/.27***

주: 남아 263명, 여아 231명임.

* $p<.05$, *** $p<.001$.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피해 행동간의 상관관계(남/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직접적 피해 행동	관계적 피해 행동
거부/제재	.25***/.04	.25***/.00
과보호	.25***/.24***	.27***/.14*
학대	.24***/.36***	.37***/.34***
방임	.35***/.31***	.41***/.20**

주: 남아 263명, 여아 231명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해 행동간의 상관관계(남/여)

	직접적 가해 행동	관계적 가해 행동
자아존중감	-.13*/-.15*	-.21**/-.21**

주: 남아 263명, 여아 231명임.

* $p < .05$, ** $p < .01$.

(남: $r = .34-.38$, $p < .001$, 여: $r = .24-.42$,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과보호, 학대, 방임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남녀 아동의 또래에 대한 가해 행동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관계적 가해 행동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만 양자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 .26$, $p < .001$),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제한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 경우, 남아의 관계적 가해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표 2>).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직접적 피해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학대, 방임적인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직접적 피해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남: $r = .24-.35$, $p < .001$, 여: $r = .24-.36$, $p < .001$), 어머니가 과보호, 학대, 방임적이라고 지각할 때, 남녀 아동 모두 또래로부터 직접적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직접적 피해 행동간에는 여아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아의 경우에만 양자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 .25$, $p < .001$),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 경우, 남아는 또래로부터 직접적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적 피해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학대, 방임적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관계적 피해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r = .27-.41$, $p < .001$, 여: $r = .14-.34$, $p < .001-.05$), 어머니가 자신을 과보호, 학대, 방임적으로 양육한다고 지

각할 때, 남녀 아동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관계적 피해 행동간에는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 .25$,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 경우, 남아는 관계적 피해 행동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표 3>).

3.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1)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해 행동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직접적 가해 행동간에는 남녀 아동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남: $r = -.13$, $p < .05$, 여: $r = -.15$, $p < .05$),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직접적 가해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적 가해 행동간의 관계 역시 남녀 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관계적 가해 행동이 낮게 나타났다($r = -.21$, $p < .01$)(<표 4>).

2)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피해 행동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직접적 피해 행동간의 관계는 남녀 아동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남: $r = -.40$, $p < .001$, 여: $r = -.42$,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남아와 여아 모두 스스로 또래로부터 직접적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은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남: $r = -.30$, $p < .001$, 여: $r = -.38$, $p < .001$)(<표 5>).

<표 5>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피해 행동간의 상관관계(남/여)

	직접적 피해 행동	관계적 피해 행동
자아존중감	-.40***/- .42***	-.30***/- .38***

주: 남아 263명, 여아 231명임.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 즉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 괴롭힘에서의 성차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모두에서 직접적 유형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관계적 유형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민정 · 도현심, 2001; 이경남, 2001; 정은희 · 이미숙, 2004). 즉,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신체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당하는 행동은 남아들에게 보다 더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수용되는 성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적 또래괴롭힘의 경우, 관계적 가해 행동에서 성차를 발견하여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결과들(김용태 · 박한샘, 1997; Crick & Bigbee, 1998; Crick & Grotpeter, 1995; Crick et al., 1999; Crick et al., 1997)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해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거부/제재, 과보호, 학대 및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남녀 아동은 높은 가해 행동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비온정적이고, 무관심하며, 과보호적이고 체벌을 많이 사용할 때 아동은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김민정, 2001; 노치영, 1988; 박미연, 2000; 이경남, 2002; 이숙 · 이춘아, 1998; 이양순, 1988; Hart et al., 1992; Olweus, 1993; Miller & Chilamkurti, 1991; Perry et al., 1988)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 때 남아의 경우에만 직접적 및 관계적 가해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이며, 체벌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체벌이 남아의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종철, 1996)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보편적으로 인식·수용되는 상황에서, 남아는 가정 내에서 경험한 공격적 행동을 가정 밖에서 보다 쉽게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좀 더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직접적 및 관계적 가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여아의 경우는 관계적 가해 행동과만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가 아동의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보호적으로 돌보게 되면 아동은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우며, 이러한 행동이 가정 밖으로도 일반화되어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아의 경우 발견된 결과는 직접적 가해 행동과 관계적 가해 행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특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한다.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아의 직접적 가해 행동과 관계적 가해 행동간에는 .37(p<.001) 정도의 다소 밀접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양자간에 공유되지 않는 또 다른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학대는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가해 행동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아동은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또래에 대해 그와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 역시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가해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어, 부모의 관심을 요하는 어린 시기에 무관심 속에 성장함으로써 잔재되어 있기 쉬운 불만감이 또래에게 표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피해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해 행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어머니가 거부/제재적, 과보호적, 학대적,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피해 행동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반응성이 낮고, 무관심하며, 체벌을 사용하고,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이 또래로부터 보다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경남, 2001; 임경원, 1997; Finnegan,

1995; Finnegan et al., 1998; Olweus, 1980)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가해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아의 경우에만 직접적 및 관계적 피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에는 어떠한 유의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성차는 바로 앞서 언급한 가해 행동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가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피해 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차 또래와의 관계로 그 비중이 커지는 아동 중기 말에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돌보게 되면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학대적, 방임적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피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이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강압적으로 훈육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해를 주거나 손상을 줄 때, 아동은 부모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래에게도 그러한 취약점을 드러내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보다 많이 당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해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가해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해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심희옥, 2002; Rigby & Slee, 1993)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아동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그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보다 많이 경험하기 쉬운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 자아감은 주변 또래와의 관계에 반영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피해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 직접적 및 관계적 피해 행동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양자간에 발견된 유의한 관계는 대체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심희옥, 2002; Egan & Perry, 1988; Rigby & Slee, 1993)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또래에게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피해 행동간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의 두 가지 유형인 직접적 유형과 관계적 유형 각각과 유사한 양상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아동의 또래괴롭힘의 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양 유형을 포함하여 또래괴롭힘이라는 문제 행동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데도 별 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 잦은 접촉을 하는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내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볼 때, 연구의 범위를 넓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아동 자신의 주관적 보고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제 삼자에 의한 관찰법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측정도구가 단기적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뿐 아니라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관련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인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해 행동 혹은 피해 행동 각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양 측면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더구나, 또래괴롭힘을 직접적 유형과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양자간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또래괴롭힘 관련 연구들과 달리 각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고려함으로써, 남녀 아동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괴롭힘의 밀접한 관련 변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행동과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아와 피해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특히 피해아를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5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02일

【참 고 문 헌】

-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 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제 14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정원(2000).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민유라(1999). 아동의 행동 특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 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성연·강지훈(2005).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 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숙·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양순(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 이종철(1996). 부모의 체벌과 자녀의 공격성간의 상관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 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 공격성 및 또래 희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3). 집단따돌림의 실태조사.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흔(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1, 215-232.
- Carson, L. & Parke, R.(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 Psychology*, 33, 579-588.
- Crick, N. R., Casas, J. F. & Ku, H.(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ron, L. D.(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y*, 27, 197-211.
- Finnegan, R. A.(1995).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Links with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Finnegan, R. A., Hodges, E.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Hart, C. H., DeWolf, M., Wozniak, P. & Burts, D. C.(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Miller, J. S. & Chilamkurti, C.(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45-366.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Press.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Rubin K. H. & Asendorpf J. B.(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315-3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1997).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Jessica Kingsley.
- Rigby, K. & Slee, P. T.(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l: Row, Peterson.